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2호 [루게 제24880호] 주제104 (2015)년 4월 12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 단계에 이른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 단계에 이른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양건 동지, 리재일 동지, 리병철 동지, 김여정 동지, 김능오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강기설 동지, 림광웅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건설중에 있는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를 현지도하시면서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우리의 멋, 우리의 특성, 우리의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설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에 펼쳐나신 해당 부문과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건물외벽에 용감하고 대담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백호를 형상화한 현대적인 건축물이지만 민족성이 살아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항공역사라는 것이 알리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출발홀, 대기홀, 도착홀, 지하주차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객들과 손님들이 리용하는데 편리하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흠잡을데없이 출발홀과 대기홀의 공간비례 설정을 잘하라고 하였는데 용도에 맞게 홀의 형상을 합리적으로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현대적인 건축물인 항공역사의 품격이 살아나게 내부공도 높은 수준에서 하였으며 특히 급속건제로 마감한 항공역사 고가도도가 정말 멋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

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것만큼 내부마감시공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선 미학성, 선 편리성이 구현되게 상업 및 급양봉사, 정보봉사, 의료봉사 등 각종 봉사망들을 조화롭고 특색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리객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출발홀과 도착홀의 공간들에 봉사망들을 더 배치할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시였다.

봉사망들을 꾸릴 때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항공역사의 장식도 우리의 기호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국제비행장

마크는 물론 봉사망들의 간판과 선전물들을 예술성, 직관성, 문화성이 보장되게 잘 만들어 붙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상품진열대와 가구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용도에 맞게 질적으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상품진열을 예술적으로 잘하며 항공역사 영업봉사를 국제적기준에서 할수 있게 준비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리객들과 손님들이 모든 홀들에서 비행기의 리착륙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영상표시장치를 설치해주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의 건물은 손색없이 웅장하다고, 심신을 가지고 달려들어 내부

시공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족점만 바로잡으면 항공역사를 훌륭히 완공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에서 정해진 기일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2항공역사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답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완공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해당 부문과 군인건설자들이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적해주신 문제들을 시급히 되치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돌격대답게 남은 공사를 질적으로 잘함으로써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완전무결하게 일떠세우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에 동원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3룡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3룡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태양조선의 크나큰 자랑이고 행운이다.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천만군민은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평도, 위대한 헌신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우리 당과 국가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로 빛내이시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온 세상에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으로 뒤편이 되고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대형과 《경축》이라는 글발이 걸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

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가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박범기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평도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당창건 일흔둘과 조국해방 일흔셋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을 맞아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3 804만부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1차례 걸쳐 일본돈으로 475억 6 919만 390부에 달한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2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 통신은 김정은평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평도자께서는 군부대에 쌓인 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해

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 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었다. 김정은평도자께서는 해병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시었다. 로씨야의 신문 《아르구멘타 이 파피》, 에호 모스크비방송, 인터넷통신 뉴스루, 톰, 꾸비의 브랜사 라파나 경과 벨가리아신문 《뉴스》도 이 소

식을 보도하였다. 꾸바의 브랜사 라파나통신, 기네 국내, 국제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동철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산포켓칼자공공장과 금산포수산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제7차 전국체육 인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네 팔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 수령 흠모, 태양칭송의 노래 더 높이 울려가리 제 4 차 4 월의 봄 인민 예술 축전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끓어치는 가운데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따라 뜻깊은 올해를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중앙과 지방에서 선발된 50개 단체에 1 500여명의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축전은 예술단 부류와 예술선진대부류, 기동예술선동대부류, 예술소조부류로 나뉘어 진행된다.

축전개막식이 11일 동정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개막식 장악이외에는 축전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으며 축전기발들이 나뉘고있었다.

개막식장에 들어서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축전을 통하여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 당의 평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할 열의가 넘쳐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개막식장정면에 모셔져있었다.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무대에 부어졌다.

최룡해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박춘남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축전참가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박춘남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태양절을 가장 성대하게 경축하는것은 우리 인민만이 지닌 특전이고 자랑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축전참가자들과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었다.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도덕의리와 비범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와 달이 갈수록 어머니수령님을 더더욱 못 잊어 그리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인민예술축전을 마련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뜻깊은 올해에 진행되는 인민예술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고 말하였다.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영원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마음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억척불변의 신념의 맹세,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판이 그대로 춤과 노래로 펼쳐지는 뜻깊은 대정치 예술축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들에게 태양민족의 존엄과 긍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태양절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조국해방 일흔둘과 당창건 일흔셋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는데 적극 기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

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조국찬가》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지는 가운데 축전기발이 개막되어

이어 개막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탄원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전당, 전국,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 우리 국가와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게 되었고 김정은동지의 거룩하신 존엄과 더불어 승리와 영광이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장엄한 세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대를 이어 늘 감격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나아가는 길에서 모든 영광을 맞이 하리라는 끝없는 희열과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동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출중한 자질과 정치력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국가를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가장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우리 혁명에서 지난 3년간은 당과 혁명의 전도와 판별되는 판관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된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평형성장세를 빛나게 실현하고 당의 유일적지도권을 확고히 확립하며 최후승리를 위한 도태를 축적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실로 방대한 시대적과제를 사소한 편향이나 우려 폭절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정치적기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세계 정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그처럼 짧은 기간에 당과 국가의 전진사업을 확고히 성취시켜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전변시키는 실력자형의 정치가, 만민이 지지하고 시대가 공경하는 정로운 정치자를 펼치시는 걸출한 명도자를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드림없이 계승해나가는 순결한 도덕의리인 정치입니다.

일제 만경대에 시원을 두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전진해오던 태양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빛내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대양 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담보,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시고 전국각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심으로 새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억년 드높지 않는 태양민족의 정신적기둥, 신념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는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의 혁명적정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위해주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총정에 의하여 이 땅에는 흐스름 태양의 력사가 세세년년 흐르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지난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세상이 열백번 뒤집히고 천지공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기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한 정치적사건이었습니다.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타류속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100% 계승하며 수령의 생전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위대성이 있고 숭고한 높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감히 건드리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중구적명말을 선고하며 흔들림이 없이 다물러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경형의 정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고 원수들에게는 준엄한 철구가 되고있습니다.

오늘 국제사회계가 우리 당의 정치를 《결실치 확고하고 결단성이 있는 정치》, 《신념과 배려를 하는 초강국가의 정치》, 《배려면 무조건하는 빈민을 모르는 정치》라고 높이 격찬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필승의 신심을 지니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확고히 성취시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에서 원수님의 력명은 밝아오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전위와 지위는 날로 높아 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세련된 명도예술과 능숙한 수완으로 기적만을 창조하는 가장 위력한 힘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고도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의리과 편의를 최우선, 전제시하는 원칙에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고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정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명도하고계십니다.

전체 인민을 사랑과 정으로 품어 주고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어비옥속에 온 나라는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으며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결정체인 만민대계의 창조물들이 하늘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진정 인민중중, 인민중시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애국의 분출입니다.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불변의 신조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면 이 세상에 정령 못할 새가 없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수 있다는것을 지론으로 삼으시고 혁명적사상공세의 포문을 일제히 열도록 하시것은 우리 당사상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주체의 사상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천사만사를 해체해 나가시는 천출위인께서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기에 이 땅에서는 《마시령속도》, 새로운 조선속도와 같은 놀라운 속도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으며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도 불거짐으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건결한 혁명적원칙성과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는 백승의 정치입니다.

오늘 우리 당과 국가가 나라의 자주적존엄과 최고리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배심있게 밀고나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배두의 혁명정신과 기질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백두산악같은 신념과 의지, 백두의 칼날같은 혁명적원칙성과 투철한 반자주침략을 지니시고 편전전승의 력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감히 건드리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중구적명말을 선고하며 흔들림이 없이 다물러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경형의 정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고 원수들에게는 준엄한 철구가 되고있습니다.

오늘 국제사회계가 우리 당의 정치를 《결실치 확고하고 결단성이 있는 정치》, 《신념과 배려를 하는 초강국가의 정치》, 《배려면 무조건하는 빈민을 모르는 정치》라고 높이 격찬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필승의 신심을 지니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확고히 성취시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에서 원수님의 력명은 밝아오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전위와 지위는 날로 높아 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세련된 명도예술과 능숙한 수완으로 기적만을 창조하는 가장 위력한 힘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고도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의리과 편의를 최우선, 전제시하는 원칙에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고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정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명도하고계십니다.

전체 인민을 사랑과 정으로 품어 주고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어비옥속에 온 나라는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으며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결정체인 만민대계의 창조물들이 하늘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진정 인민중중, 인민중시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애국의 분출입니다.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불변의 신조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면 이 세상에 정령 못할 새가 없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수 있다는것을 지론으로 삼으시고 혁명적사상공세의 포문을 일제히 열도록 하시것은 우리 당사상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주체의 사상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천사만사를 해체해 나가시는 천출위인께서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기에 이 땅에서는 《마시령속도》, 새로운 조선속도와 같은 놀라운 속도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정치실적을 수놓으시는 나날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전군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백두전서적인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어 안목도 뛰어나고 전국에 명사수, 명모수운동의 불길들 지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고견적주요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를 더욱 발전시켜 부화한 불멸의 문헌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로선, 김일성애국주의에 관한 사상과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 군사, 과학기술적 힘을 바탕으로 다져주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전군이 시작되는 력사적시점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고전적명제를 제시하시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전진을 안아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대양을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나의

동지부대를 이루고 하나의 심장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전군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백두전서적인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어 안목도 뛰어나고 전국에 명사수, 명모수운동의 불길들 지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고견적주요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를 더욱 발전시켜 부화한 불멸의 문헌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로선, 김일성애국주의에 관한 사상과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 군사, 과학기술적 힘을 바탕으로 다져주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전군이 시작되는 력사적시점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고전적명제를 제시하시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전진을 안아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대양을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과 자랑찬 체육성광들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3년간의 하루하루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위대성이 산 현실로 과시되고 현실대 정치거장으로서는 절대적권위와 명성이 온 세상에 힘있게 펼쳐지는 경도계를 철저히 확립하시것은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수호하신 특출한 업적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되고 우리 식의 다양하고 위력한 타격수단들로 커다랄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습니다.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쭉추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나가자》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고견적주요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를 더욱 발전시켜 부화한 불멸의 문헌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로선, 김일성애국주의에 관한 사상과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 군사, 과학기술적 힘을 바탕으로 다져주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전군이 시작되는 력사적시점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고전적명제를 제시하시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전진을 안아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대양을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나의

다섯 세차례 일으켜 당창건 일흔과 조국해방 일흔을 빛나는 로력적성과 맞이하여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와 제일기수인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당의 방침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하였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사업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조국전승과 세도지구 축산기지, 과학기술전진건설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선상을 넘어서는 대박, 대혁신을 창조하여야 하였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조상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투상태를 유지하며 군위부대운동의 불길들이 싸움준비상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주적국방공업을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시키고는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펼쳐서 세워 진군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모두가 새겨안은 철의 진리입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운명이시며 삶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경사용하여 일심단결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를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로, 모든 목숨으로 경사용하여 일심단결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명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천배로 다지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를 높히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열풍,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창조의 불길은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민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11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시고 주체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켜보며 축전 참가자들은 태양영생의 언덕에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꽃바구니의 맹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대에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태양의 노래, 위인칭송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주의 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 청년 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3돐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1일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선

봉대, 들레대의 영예를 빛내여 온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든 청년학생들로 흥성이었다.

개신부,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

은 이 땅에서 강성변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시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의 정으로 뜨겁게 열매이였다.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의 기적을 창조하여온 전세대 청년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수요전과 강성국가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청춘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갈 참가자들의 열정과 기백으로 하여 무도회 분위기는 시간이 흐름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불타는 삶을 위한 사랑해》, 《청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 《청춘의 자랑》, 《조선청년행진곡》 등 청년들의 열정과 량만이 넘쳐흐르는 노래들이 장대에 울려 퍼지는 속에 참가자들은 경축의 춤출름, 환희의 춤출름을 세차례 열어나갔다.

무도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에 제시된 관철명령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전위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민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1일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리원활동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명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리원활동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명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까자흐스탄공화국 외무성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1일 바를리바이 씨의코프르 회담사를 단장으로 하는 까자흐스탄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후에 글을 남겼다.



# 청춘궤도에 새겨진 그 위훈 조국은 잊지 않으리

##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혁명발전전선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거창한 대자연개조와 대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청춘의 기범비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저 멀리 백두성산에 시원을 두고 조국의 서북변기슭을 지키며 격랑쳐흐르는 역사의 강변에 청춘궤도가 뻗어있다. 첫 열차의 기적소리 북변산천에 메아리 치던 1980년대로부터 근 30년이 지난

### 대를 이어 지켜가는 빨찌산전구

주제 100년대의 마감해인 2011년 이었다.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친히 받기하시고 그 영예로운 과업을 청년동맹에 맡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이 전투장들마다에서 《조선청년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천주-하성간 철길공사장에서 발휘되었던 청년건설자들의 기적과 정신, 혁명적 락관주의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갈것이라고... 이런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김일성조선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그런데나 아버지장군님과 선군혁명명도의 길에 함께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는 나라의 철도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장군님께서 이처럼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을 청년동맹에 맡겨주신것은 청년동맹조직과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표시라고, 청년동맹에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보답하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이런 믿음과 기대를 안고 우리 청년들은 저저마다 앓을 다하며 압록강기슭으로 달려왔다.

실로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는 단순한 경제살수목적이 아니었다. 방대한 철길개건보수공사를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준데는 새 세대 청년들을 빨찌산투쟁전구인 압록강변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속에 더 깊이 새겨어린 쇠소리나 선군혁명투사들로, 애국청년들로 억세게 준비시키려는 당의 의도가 어려웠다.

자기를 성스러운 혁명전구로 부른 당의 그 뜻을 뜨겁게 받아안았기에 현지에 도착한 청년들은 물결세찬 압록강가에 나갔다.

우리 수령님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았던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비장한 맹세를 다지며 건느였고 굵이 굵이마다에 항일의 피어린 자욱을 새기신 력사의 강이라는 생각으로 청년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 압록강!》

평양시리단의 대원인 오은향동무가 강물에 손을 잠그며 조용히 외을 때 은근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제부터 우리는 압록강용사나 다름없소... 처 흥일동무 백두산선사사의 철호, 은향동문 꽃비니...》

려단장 양영호동무의 말에 처녀돌격대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성을 터쳤다. 《그러나 우린 빨찌산... 야!》

《홍소, 우린 오늘의 빨찌산이요! 21세기 청년빨찌산이란 말이요!》

각 려단마다 압록강파의 《상봉》을 의미심장하게 하였다.

어떤 려단에서는 《혁명군의 노래》와 《유격대행진곡》, 《적기》를 비롯한 항일혁명군가와 《조선청년행진곡》과 같은 노래로 대대별합창경연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동무들, 보십시오! 우리가 달려온 이곳은 백두산내장군 김성숙동지와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자욱이 아로새겨진 뜻깊은 곳입니다. 먼저 혁명사적지를 참관하는것으로써 우리는 려단의 압록강 《도착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정렬한 대오앞서 함경남도려단장 황장춘동무는 선전하듯 하였다.

참으로 선군청년전위들의 압록강변에로의 진출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백두의 행진길의 절기한 연속이었다.

자기들이 받아안은 성스러운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할 불같은 열정을 안고 청년돌격대원들은 처음부터 드세찬 돌격전을 벌려나갔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라는 청년백부들과 같은 비보에 접할줄이야... 북부철길청년돌격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몸부림쳤다.

압록강 굽이굽이 뻗어간 이 철길을 보다 더 튼튼히 다져 총정의 궤도우에 하루빨리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왔는데... 《머칠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관철을 위한 전투를... 벌였습시다. ... 그 명령관철전투가... 이제부터 유훈관철전투로... 이렇게 뿔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물을 썩어삼키며 하는 북부철길청년돌격대의 지휘관인 리금철동무의 말을 들는 순간 역대우같은 려단장, 정치부러대장들은 더 새차게 어깨를 떨었다.

오늘날 그 청춘궤도를 보다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한 거창하면서도 격렬한 개건보수공사를 자기들의 힘과 열정으로 본래있게 해제된 우리의 청년들, 어려례동안 북방의 사나운 눈비바람속에서 결사전을 벌려온 선군청년전위들은 지난해말 북부철길전구간의 구조물공사를 지어 승리적으로 계속하였다.

어제날의 선열들과 선배들처럼 백두의 넓과 기상을 안고, 불타는 애국충정을 안고 60여리의 청춘궤도에 더운 땀을 아낌없이 뿌린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전위들의 그 위훈을 어머니조국은 잊지 않을것이다.

억만만 죽더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자!

서로서로 어깨걸고 무릎같은 주먹을 내은 들며 청년대오의 지휘관, 정치일꾼들은 결사전을 부르짖었다.

새로운 공격작전이 펼쳐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이 많이 내리는 이 겨울철에 침목용통나무생산을 기어아 끝내자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북부철길청년들격대의 전체 청년전위들은 가슴터지는 비통함을 친해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며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러나 언제한번 나무베기를 해본적 없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무르드나무를 찍어넘기고 아지를 치고 토막을 내어 끌어내리는 벌목작업은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다.

속소에서부터 산지까지 10~20여리, 그 산지에서 아무리 높은 산등성이에 올라가도, 두대 나무를 베어낸 다음 그것을 나무뿌리까지 끌어내리는 거리 또한 10여리 길이었다.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 낮에 찍은 나무를 밤에 달빛, 별빛을 조명삼아 한치한치 끌어내릴 때면 너무나이 흰눈을 휘젓는 눈사람이 되곤 하였다.

명하 30~40℃를 오르려는 북방의 눈속한 추위, 생소한 나무베기, 무릎을 치는 눈혹에서의 통나무떨어내리기...

한치한치 결사의 각오였지만 전진할수 없는 그 투쟁과정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는 엄격한 시험과정이니 다름없었다.

함경남도려단에서는 벌목전투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결사대를 따로 조직하였다.

결사대 대장은 려단장, 부대장은 정치부러단장, 대원들은 대대와 소대급 지휘성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무어졌다. 결사대는 이에 산관에서 침식하며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왔다.

사나운 눈보라가 기슭을 부리던 어느날 밤을 흘리며 앞장에서 통나무를 끌고 나무뿌리까지 내려온 려단장은 한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식 결사대 대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려단직속 2소대 대원인 신광성동무가 대렬에 끼여 통나무를 끌고있었던것이다.

당장 임원지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 때문에 후송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세웠는데...

려단공과가 호된 추공을 받고있을 때 신광성동무의 젖어든 목소리가 모두의 가슴을 두드러였다.

《저도 아버지장군님을 부르며... 장군님 을 목매어 부르며... 피눈물속에 맹세를... 맹세를 다쳤습시다!》

려단장은 뜨거웠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외었다.

그때 우리모두 아버지장군님 려정에서 피눈물의 맹세를 다졌지. 한몸이 그대로 침묵이 되고 자갈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린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켜야 해!

이런 결사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며 청년돌격대원들은 수신타는걸 해치면서 하루 몇척씩 끌어내리던 통나무를 2배, 3배로 끌어내리려고 성차지기를 아끼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또다시 산관에 올랐다.

《...오늘은 정말 힘들다.》

내년엔 통나무를 나무뿌리까지 끌어다놓을 때, 눈물이 물먹은 손처럼 젖어들었다. 이때 하늘을 올려다보니 북두칠성이 반짝이고있었다.

북두성정 저 멀리 별은 밝은 데 아버지장군님은 어제 별가라는 노래가 마음속에서 저절로 울렸다.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나는 다시 산관으로 올랐다.

함경남도려단 전총지동무의 일기장에 의어진 이 글말을 보며 우리는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모두의 심장속에서 끓어번진 한결같은 열과 정을 가슴뜨겁게 읽었다.

벌목전투가 그 얼마나 간고하고 처절하였으면 려단장들도 대대장들도 대원들도 모두 땀뭇하게 피멍이 들어 봉대를 잡고 그 우에 어깨받치까지 다쳤었다. 그러고도 피멍이 든 그 어깨에 또다시 팔바를 메고 계속 통나무를 끌어내린 그들이었다.

당장 내리라고 무작정 팔을 잡아올 때 철민동무는 《나야 대대장이 아닌가.》라고 한마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웃음이 뿔줄을 그 누가 알았으리.

가파로운 자작령고개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져내리는 위급한 순간 그는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었다.

매일, 매 시각 빨찌산전구에서 싸우다는 각성이 가슴을 쳤기에 우리 청년전위들은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며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라는 항일의 혁명군가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안고 세찬 눈보라속에서 공격 또 공격하였기에 불과 두달남짓한 기간에 침목용통나무생산을 성과적으로 끝내는 위훈을 창조한 청년돌격대원들이었다.

갑자기 쏟아져내린 폭우로 하여 평양시리단이 맑은 철길구간의 하천용벽이 와르르 무너져내렸을 때였다.

수심m의 레우와 그 레우에 붙어있는 침목들이 허공중에 동동 떠있었다. 너무도 엄청난 피해부를 할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년돌격대원들은 그들이 정한 90일을 5분의 1로 줄일것을 결심하였다. 말그대로 단숨에였다.

려단장으로부터 마지막대원에 이르기까지

### 연길폭탄력사는 옛말이 아니다

침목교체와 자갈보충, 전력용벽공사와 하천용벽공사, 차굴공사와 중구조물공사, 락식렬기와 로반정리...

가치수를 짚아낸 열순가락도 모자라는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중에서 차굴보공사는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전투중의 전투였다.

한치않도 가려보기 힘든 수백, 수천m의 갑갑한 차굴안에서 전지불을 비쳐보면 아열하게 높은 그 천정에 혼함물타임을 한다는 것은 영하야 땀비비호환에서사며 본적 없는 일이었다.

전투를 며칠 앞둔 어느날 함경북도려단에서는 모든 대원들이 현장을 돌아보게 하였다.

《저런 천정에 어떻게 혼함물타임을?... 《우리가 해 해낼수 있을가?》

너무도 엄청난 전투과제를 놓고 돌격대원들은 저마다 우려하였다.

문제는 정신력발동이었다. 그날 대원들과 마주앉은 차령철려단장은 돌격대원들에게 물었다.

《동무들도 잘 알고있지. 연길폭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려단장은 자기의 주먹을 내흔들며 저력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빨찌산투사들은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냈소... 사상을 틀어쥘이 이 맨주먹으로도 폭탄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연길폭탄력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있잖는가!》

려단장의 불같은 웨침을 들으며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력신으로 싸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불굴의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었다.

그런데 정작 전투에 진입하고보니 불리한 조건, 예상치 않았던 정황은 어느 려단, 어느 차굴보공공사장에서나 아닌 밤중의 홍두개처럼 때없이 수시로 들이닥쳤다.

공공적으로 된 천정아치회복회를 조직한 다음 그 우에 혼함물을 채워넣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럼이 많아지다니 무거운 감자같이 못한 휘음이 순간에 외락 무너져내렸다.

방공정까지만 해도 기세를 올린 돌격대원들은 뜻밖의 분변앞에서 손에 이끌려 쏟아져내린 혼함물더미우에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사실 그 2대대는 신대원들로 무어졌기에 려단에서 각별히 품을 넣던 대오였다.

대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해 2대대의 전체 대원들을 집합시킨 려단장은 《이제부터 2대대는 화약을 다져야겠소. 정신적화약을!》라고 힘주어 말하고 자기가 먼저 노래선창을 했다.

... 우리들이 나가는 곳 어렵고 겁날것 없애라 온 세계를 이겨나갈 광활한 앞길은 열었다 산을 넘고 바다건너 우리의 젊은 힘 뻗어나

동무들이 어깨걸고 김장군뒤리에 뭉치자 슬리는 우리의걸기로 뭉치진 힘 바치자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바치자

모두가 자기들이 정한 그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혼식마대, 세멘트마대를 지고 달려고 또 달려었다. 한쪽으로 합마와 정대로 용벽기초를 더 깊이 파헤치며 지지기반을 닦아나갔다. 청년들의 전투장은 밤이면 곳곳에서 우등불과 회불들이 타올라 불꽃지로 변했다.

가기에 음향기재에서 울리는 힘찬 노래소리와 함께 합마질소리, 질통을 메고 맞들이를 들고 일제일이 달라는 돌격대원들의 외침이 합쳐져 전투장은 불도다카마냥 붉어변했다.

한둘이 또 한둘이 용벽을 쌓아올리며 돌격전을 벌리던 끝에 마지막대선에 와서는 려단전체가 무거운 레우를 어깨를 들이밀고 구간별수평맞추기를 해나갔다.

한사람의 구멍에 따라 전체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우회와 같은 합참을 터치며 한구간 한구간 역세게 레우를 떠올렸다.

한몸이 그대로 침묵이 되고 자갈이 되고 용벽이 되어 두줄기 궤도를 만들어올리는 똑같은 돌격으로 피해부구전투를 단 13일 만에 끝낸 결사관철의 투사들,

이런 불굴의 용사들에게 복귀된 철길을 따라 처음으로 통과하는 열차의 기판사와 조사는 물론 열차가 탄 손님들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비바람에 젖고 힘겨움과 피곤에 지칠대로 지쳐어도 손님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답례하며 울고웃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은 진정한 어제날 빨찌산대원들의 모습그대로였다.

### 옛말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전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북부철길청년돌격대의 모든 대오를 용암처럼 끓여번지게 하였다.

백두신의 물과 풍기를 마시며, 백두의 연길폭탄력사를 배우며 성장한 새 세대들이었기에 그들은 항일선열들처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자 차굴정정리타입 전투를 기세차게 벌려나갔다.

함경남도려단이 맑은 차굴청정회복공사는 갑갑한 전구과제였다.

차령철회복 북부철길기 차단된 조건에서 공사용자재를 실은 열차가 함흥, 길주, 길주... 이렇게 동해안을 에둘러 해산을 거쳐 내려오는데 맞게 함경남도려단이 차굴청정회복공사를 빨리 끝내야 그 열차를 통과시킬수 있었다.

당의 명령을 기어아 관철해야 했기에 려단장은 구제적인 정황판단에 이어 단호한 결심책을 하였다.

《각 대대마다 2개의 타임조를 《타격대》로 하여 교대제 24시간 연속 공격한다. 《동무들도 잘 알고있지. 연길폭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려단장은 자기의 주먹을 내흔들며 저력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빨찌산투사들은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냈소... 사상을 틀어쥘이 이 맨주먹으로도 폭탄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연길폭탄력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있잖는가!》

려단장의 불같은 웨침을 들으며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력신으로 싸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불굴의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었다.

그런데 정작 전투에 진입하고보니 불리한 조건, 예상치 않았던 정황은 어느 려단, 어느 차굴보공공사장에서나 아닌 밤중의 홍두개처럼 때없이 수시로 들이닥쳤다.

공공적으로 된 천정아치회복회를 조직한 다음 그 우에 혼함물을 채워넣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럼이 많아지다니 무거운 감자같이 못한 휘음이 순간에 외락 무너져내렸다.

방공정까지만 해도 기세를 올린 돌격대원들은 뜻밖의 분변앞에서 손에 이끌려 쏟아져내린 혼함물더미우에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사실 그 2대대는 신대원들로 무어졌기에 려단에서 각별히 품을 넣던 대오였다.

대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해 2대대의 전체 대원들을 집합시킨 려단장은 《이제부터 2대대는 화약을 다져야겠소. 정신적화약을!》라고 힘주어 말하고 자기가 먼저 노래선창을 했다.

... 우리들이 나가는 곳 어렵고 겁날것 없애라 온 세계를 이겨나갈 광활한 앞길은 열었다 산을 넘고 바다건너 우리의 젊은 힘 뻗어나

동무들이 어깨걸고 김장군뒤리에 뭉치자 슬리는 우리의걸기로 뭉치진 힘 바치자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바치자

모두가 자기들이 정한 그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혼식마대, 세멘트마대를 지고 달려고 또 달려었다. 한쪽으로 합마와 정대로 용벽기초를 더 깊이 파헤치며 지지기반을 닦아나갔다. 청년들의 전투장은 밤이면 곳곳에서 우등불과 회불들이 타올라 불꽃지로 변했다.

가기에 음향기재에서 울리는 힘찬 노래소리와 함께 합마질소리, 질통을 메고 맞들이를 들고 일제일이 달라는 돌격대원들의 외침이 합쳐져 전투장은 불도다카마냥 붉어변했다.

려단, 황해남도려단이 동시에 전투를 벌려었다.

때이르며 들이닥치는 추위로부터 공사장의 온도를 보장하기 위해 거대한 차굴의 광폭입구를 비닐막으로 막고 그 안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은 결사전을 벌려었다.

원형철근콘크리트조립방법, 전면조립, 전면타입방법과 같은 새로운 기술혁신안들과 광차에 의한 이동식 3단발판, 골재운반을 위한 자동부림식철길조차와 같은 능률적인 작업기재들이 련속 창안도입되었다.

천고의 밀림속에서 맨손으로 열길폭탄을 만든 선열들의 그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완강한 공격정신, 결사의 투쟁정신이 새 세대 청년들의 전투장에 그대로 불길쳤다.

차굴회복공사를 끝내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속도는 백두산으로 달리는 우리들의 속도이다!

애국청년들의 불굴의 의지가 맥박치는 이런 힘있는 글말들이 차굴벽에 새겨졌다.

두줄기로 뻗은 궤도 하나를 놓고 3개 려단이 철길조차로 골재를 실어나르자니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세멘트와 모래, 자갈과 막돌을 비롯한 골재를 앞세워 보장해야 타입속도를 높일수 있었기에 청년돌격대원들은 순간도 멈춤없이 돌격하였다.

일단 자기 려단시간이 되면 미리 대기시켰던 4~5대의 철길조차를 동시에 확 내밀면서 청년들은 달리고 또 달려었다.

머칠째 떨어지지 않는 고열을 승기고 계속작업을 하던 평안북도려단 4대대 1소대대원 팀철순동무는 더는 몸을 지탱하지 못한 당장 현양에서 쓰러졌다.

한창 의소로 후송할데 대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다른 명령은 다 집행해도 차굴에서 나가라는 명령만은 집행하지 못하겠다며 처하는 두손으로 레우장을 짝 떨어잡고 놓지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작업복안주머니에서 아버지 가 보낸 편지를 내놓았다.

《...철순아, 네 아버지, 어머니는 어제날 북부철길건설장에서 청춘시절을 보냈단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백두산을 바라보며 산을 허물고 골을 뚫고 철다리를 놓으면서 철길을 건설한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속에 백두산을 안고 애국의 더운 땀을 비쳐야 한다는걸 부디 명심해다오...》

마음속에 백두산을 안고 산다는것은 백두의 연길폭탄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산다는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에 청년돌격대원들은 그날의 빨찌산투사들처럼 용진용퇴 앞으로만 나아갔다.

함경북도, 함경남도려단을 비롯한 여러 려단들이 벌린 철다리기초보강공사, 열염정어러들이 동중 뜬 차디찬 강물에 뛰어들어 청년돌격대원들은 한쪽으로는 가물마이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물속에서 골재를 나르며 결사전을 벌려었다.

땀을 에이는 열염물속에서 전투를 벌리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내대원들은 눈물속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이때 구공판에서 작업을 하던 함경북도려단 1대대장 김광성동무가 웨쳤다.

《노래를 불러라!》

《적기》가 울렸다.

눈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열염물속의 청년들도 함께 불렀다.

비집간차야 갈려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기리라

두석달은 걸려야 한다는 아름다운 공사를 단 며칠동안에 해제된 불굴의 용사들, 기적이였다.

차굴회복전투장과 피암차굴건설장, 하천용벽공사장을 비롯한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 구간의 모든 전투장들은 이런 기적이 쉬임없이 창조되는 장엄한 격전장이었다.

그 격전장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은 선열들의 투쟁정신을 그대로 새겨안고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였으며 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독특한 공법과 철도건설기재들을 수많은 제작도입하였다.

성스러운 혁명정구에서 애국의 더운 땀을 동리로 흘리고있는 열형청년들, 대를 이어 연길폭탄정신을 힘차게 엮어가고있는 이런 믿음직한 후손들을 백두산은 미더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고있었다.

주며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진가고 나무랄 때 만중동무는 말없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소박한 그 미소속엔 동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임을 자각한 우리 청년들의 불같은 동지애의 세계, 열렬한 조국애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막돌채취전투장에서 끌러내리는 바위들을 자기 몸으로 막아 동지들을 구원한 성, 중앙기관려단 1대대 대원 김금철동무에게 내린 진단은 절망적이었다.

의료일꾼들이 벌린 비상장투로 하여 가가스로 사장에서 구원되었지만 오른쪽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것은 어쩔수 없는 의학적 결론이었다.

그러나 리경일려단장은 그 결론을 단호히 부정하였다.

《아니, 금철동무의 다리는 절대로 자를수 없소!... 려단이 있지 않거나? 그러면!》

려단이 있지 않거나? 그 말은 곧 동지들이 있지 않거나! 라는 절절한 웨침이었다.

은 려단이 펼쳐나 피와 살, 뼈까지 서슴없이 바치며 끝내야 그를 완결시켰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던 자기를 위해 피를 마시고 살을 바치고 뼈까지 바친 더없이 고마운 동지들에게 인사를 하며, 두 다리에 힘을 주며 석색하게 걷는 김금철동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는 심장의 언약을 함께한 동지, 철근주구도 살수 없는 귀중한 동지들을 위해 빨찌산투사들처럼 주저없이 한몸을 내면 끝날같은 청년들, 똑같은 처녀들.

황해남도려단의 김남숙동무와 김금성동무, 평안북도려단의 공경철동무와 함경북도려단의 김은옥동무, 함경남도려단의 정혜성동무들은 동지를 위해 자기의 한몸속을 서슴없이 바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김일성청년동맹에상과 함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정치적 신임을 베풀어주시었다.

한창 또 한창 그때들의 이름이 조국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져 때 청년돌격대원들은 등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요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기려라네 《동지애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이들만이 아니었다.

저 하늘의 별을 따라 앞기슭에 달아주고 싶고 금방이라도 앉혀주고싶은 진주보석과도 같은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모두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차례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었고 수많은 청년돌격대원들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리로, 높은 급의 국가수훈자로, 국가인내회의 대표로 내세워주시었다.

항일의 피어린 혁명전구에서 애국총정의 더운 땀을 아낌없이 뿌려있고있는 미더운 청년들을 보며,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시대의 주인공으로 젊음을 불태우고있는 더없이 강한 백두의 후손들을 보며 사람들은 수명의 유훈관철전, 당쟁책용권이아랄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라는 값비싼 철리를 다시금 사무치게 걸갈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율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피뎌는 심장마에 새겨안은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은 새로운 열정과 투지를 안고 일떠섰다.

당인 준 성스러운 전투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 승리자였건만 우리의 주인공들은 또다시 새로운 과제를 스스로 맡아안았다.

북부철길 수백리구간의 모든 역사를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함으로써 10월의 경총광장에 당당히 들어설 맹세로 가슴불태우며 또다시 펼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

압록강변의 청춘궤도를 대를 이어 우리 청년들이 맡자!

이런 애국의 의지 맥박치는 청년들의 가슴속에 불멸의 글말이 새겨져있다.

###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안은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 김정은

#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역사를 전하는 은정차

웅장 화려하게 일떠선 창전거리의 한복판에는 은정차집이 자리 잡고 있다. 아담하면서도 모든것이 건축 미학적으로 맞게 섬세하게 꾸러진 사연깊은 이 차집에 들어서면 금시라도 진달래꽃향기가 풍겨올것만 같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넘쳐나는 뜻깊은 4월의 이 봄날에 우리는 여기서 그 이름도 유명한 은정차에 갖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역사를 가슴에 짊어지고 돌아온다. 위대한 은정차 집이 있는 곳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은정차 생산과 봉사를 잘하면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우리 인민들이 좋은 차를 탈 수 있게 될것입니다.》 차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음료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수분과 영양물질을 보충해주고 물질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차는 정신적, 육체적피로를 풀이주고 유기체의 활동능력을 높여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중음료이다. 예로부터 《불로장수의 명약》으로 불리우며 돈있는자들속에서는 금으로까지 교환되던 차는 1인간의 일을 따라 1kg의 원료를 장만할 정도로 차나무 재배로부터 차잎생산과 가공에 많은 품이 든다고 한다. 더우기 차나무에 속하는 사철푸른 작은 키나무인 차나무는 기생관에 마르면서 복귀 36° 선 이북지역에서는 재배할 수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이런데로부터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속에는 1980년대이 전까지만 하여도 차나무재배와 관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위대한 은정차 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혁명적 령도 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이 땅 그 예 가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빛나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을 노래하는 수평호, 영생축원의 노래소리도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속에 평양대극장에서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의 뜻깊은 공연무대가 성대히 펼쳐지게 된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안에 조선식지붕을 띠고 민족의 우수한 건축양식을 자랑하며 웅장하게 솟아올라 오랜 기간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의 거점, 주제적무대예술의 전당으로 그 이름 떨쳐온 평양대극장에도 인민을 위해 바친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 있었다. 존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승리할 조국의 메일을 내다

우리 나라에서 차를 자체로 생산하여 인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풍족하게 마시도록 할수 있는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나라에서 신물로 보내는 차나무모를 몸소 저택에 심고 재배시킴도 하시였으며 수백근루를 농업과학원에 보내주시면서 풍토순화시켜 퍼지도록 현대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었다. 차나무모를 장경군의 양지바른 곳에 심도록 적지로 정해주시고 앞으로의 연구사업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주시것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나무재배 시범에 대해서 주신 교시는 주제 72 (1983)년 한해 동안에만도 여러차례나 된다.

이러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농업과학자들은 차나무모를 우리 나라 북반부지역의 최서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강령군에 정성대야 심고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차나무재배와 관련한 실례를 보고받으시고 그 재배면적을 늘일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심화강령군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농업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피타게 사색하고 탐구하여 우리 나라 기후조건에 맞게 명화 15°C이상에서가 아니라 명화 19°C에서도 겨울나이를 할수 있게 순화한 여러가지 차나무 품종들을 선발하는데 성공 하였다.

이처럼 남방에서 자라던 차나무를 우리 나라에서 재배하기 위한 실례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 사잇길로, 크나큰 은정속에 진행되었으며 그와 더

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전후 수경건설총계획도를 보내주시면서 정양의 중심에 조선식극장을 통틀어 건설할때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다.

전후에는 그 위치까지 몸소

## 인민의 문화전당 평양대극장

잡아주시고 설계로부터 건설 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을 찾으시어는 대극장을 인민의 문화전당으로 잘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주제 49 (1966)년 5월 30일 또다시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극장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그날 아침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이 대극장은 인민들을 위한 예술의 전당인것만큼 인민들의 요구대로, 인민들에게 편리하게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물로 잘 지어야 한다고 거듭 교시하시었다.

볼어 차나무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조국 땅에 펼쳐주시 차나무재배의 새역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더욱 활짝 꽃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직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사연깊은 차나무재배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가도록 귀중한 조치도 취해주시고 차에 갖는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을 깊이 진화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차를 《은정차》로 부르도록 뜻깊은 이름도 몸소 지어주시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민들의 차마시는 풍습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식의 새로운 차문화 창조해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들고 우리 농업과학자들은 차나무재배 번식과 차잎가공기술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차나무재배와 차잎생산정형을 올려치게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시었다. 그 손길에서서부 강령지구와 동부의 고성지구에는 은정차재배원들이 새로 조직되고 출몰하기 위하여 되었으며 질 좋은 차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주제 98 (2009)년 5월 은정차재배원에서 생산한 차를 몸소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차보다 더 좋다, 차맛도 좋고 모양도 잘 하였다 고 하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차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였는가고

시었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기본계획으로 꾸러진 대극장안의 여러각을 돌아보시며 몸소 정면과 좌우좌측에 앉아서 몸소 무대와 관람석사이의 거리관계, 음향조건도 헤아리시면서 대극

장을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편리하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 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평양대극장》이라고 몸소 이름도 지어주시고 준공예까지 이끌어주시 아버지수령님

절세위인의 이렇듯 뜨거운 인민 사랑에 의하여 1960년대를 대표하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인 일떠선 평양대극장은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중요 정치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식 혁명가극이 창조된 가극형식의 발전지로, 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공연된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 크나큰 사랑속에서 그해 수도의 거리에 은정차를 봉사해주는 매대가 생겨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100(2011)년 8월과 11월에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대로 차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봉사할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다. 차의 효능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차마시는 풍습, 우리 나라 차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우리의 은정차에 갖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령사에 대하여, 색도 좋고 맛도 좋게 료차와 홍차를 라는 방법, 은정차 재배원에서 차잎생산은 최대한 늘이며 여러가지 종류의 차를 만들어 봉사할데 대하여 그리고 새 로 일떠서는 창전거리 봉사시설 구역을 비롯하여 평양시의 여러 곳에 차집을 내고 은정차를 봉사할데 대하여...

마다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때, 마지막날에 남기신 이 간곡한 유훈은 우리 시의 새로운 차문화를 창조하고 보급하는데서 든든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었다. 하기에 은정차에 갖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령원을 그대로 안고서 주제 101(2012)년 5월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의 은정차집을 찾으니 정겨운 한수령님께서 이 차집에는 우리 인민들이 차를 마음껏 마시게 하려고 마음쓰신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그리시던 은정차집을 전달해올처럼 되게 식탁의자도 장식벽면의 색과 의자를 더욱 굳게 다져나갔던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관심과 세심한 손길에 떠안들려 창전거리의 은정차집은 현대적으로 일떠서게 되었으며 그해 7월부터 봉사를 시작하였다.

은정차집에서는 은정어린 우리의 료차와 홍차는 물론 보리차, 메밀차, 강냉이수염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를 그 맛이 잘 살아나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

은정차집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차잎을 리공하는 료차세우튀기, 참깨볶아튀기와 같은 료리들과 차에 곁들이는 음식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봉사하고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맛좋은 차를 개발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농업성의 적극적인 지도방조 밑에 여러가지 차원료 확보하여 연공과차차용양산과 미식평생키장을 비롯한 많은 봉사단위들에 보내주고있으며 이를 통하여 차문화의 보급정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있다. 수십년전 수백근루로 일떠서던 차나무는 오늘 수량이 늘어났다.

정령 하나의 물방울에도 온우주가 비기듯이 대를 이어 더해 가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비쳐 있는 우리의 은정차이다. 그렇다, 우리 식의 차문화는 이렇게 꽃피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원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과 더불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한없는 그리움과 더불어 수령님들의 태양의 령사는 이 땅우에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려병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령사에도 있어 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라.》

어마진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 령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존경의 정을 안고 짧은일천세만뿐 아니라 여러 계기마다 정성껏 마련한 희귀한 식물들을 선물로 올리려는 세 대모이고무나, 삼색꽃나무, 커니나무를 비롯하여 그 가지수는 참으로 많다고 한다.

해외동포들과 세계인민들이 조선혁명과 세계지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을 안고 올린 선물은 450여종에 이르는 140여구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음 은정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정차에 호모하여 마치 않는 절세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더해주는 두번째 은정차에 이르기까지 온갖 갖가지 식물들과 함께 철쭉과 영산송 등 여러가지 색깔의 꽃들이 만발한 세번째 은정차였다. 그후한 꽃향기가 온실안을 가득 채우고있었다.

황홀한 꽃의 세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 데 원사님 김준영동무는 호랑가시나무에서 풍기는 향기도 독특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 나무쪽으로 이끌었다.

조 함 III

# 위인칭송의 화원에 꽃향기

중양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선물식물온실을 찾아서

찾아본 우리는 어느 한 화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뽕스카의 어느 한 종향대학 식물원에서 아버지수령님께 삼가 올린 짧은일천세만이었다.

온실에서 일하는 원사님 김인욱동무가 이야기하기를 그 식물원은 백수십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으며 뽕스카의 식물원들중에서 식물종수가 가장 많은 식물원이라는것이였다.

그 식물원에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의 정을 안고 짧은일천세만뿐 아니라 여러 계기마다 정성껏 마련한 희귀한 식물들을 선물로 올리려는 세 대모이고무나, 삼색꽃나무, 커니나무를 비롯하여 그 가지수는 참으로 많다고 한다.

해외동포들과 세계인민들이 조선혁명과 세계지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을 안고 올린 선물은 450여종에 이르는 140여구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음 은정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정차에 호모하여 마치 않는 절세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더해주는 두번째 은정차에 이르기까지 온갖 갖가지 식물들과 함께 철쭉과 영산송 등 여러가지 색깔의 꽃들이 만발한 세번째 은정차였다. 그후한 꽃향기가 온실안을 가득 채우고있었다.

황홀한 꽃의 세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 데 원사님 김준영동무는 호랑가시나무에서 풍기는 향기도 독특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 나무쪽으로 이끌었다.

조 함 III

# 그리움으로 설레이는 교정

개성시 3중영예의 붉은기 선죽교급중학교에서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학교가 수놓아온 발전의 령사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을 수여받고 3중영예의 붉은기를 쟁취한 단원,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은정이 어린 수많은 선물들, 학교가 베풀어준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김일성소년영예상수상자와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 인민예술가들 비롯한 명예정호소유자들...

더욱 눈길을 끄는것은 영광의 학교에서 지난 기간 7.15희우등상, 우리 김일성훈장수상자들도 수없이 배출된것이다. 그 밑에 애도 교장 리선욱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해 애썼을뿐입니다. 이제 알게 되었지만 우리 학교교원들이 수업에

리용하는 교편물이 적지 않습니다.》

지 려 철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1일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장인 일본의 부장 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 드렸다.

# 인디아를 공식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일행 출발

인디아공화국을 공식방문하기 위해 리수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일행이 1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아제이 쿠마르 샤르마 주조 인디아공화국 특명전대사가 전송하였다.

#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부 파주제사상연구회 단장이 11일 비행기로부터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대표단장인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맞이하였다.

#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부 파주제사상연구회 단장이 11일 비행기로부터 평양에 도착하였다.

# 까자흐스탄공화국 외무성대표단 귀국

바르비바이 사디 스판공화국 외무성 부대표를 단 대표단이 11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 활발

평안북도 출판물관리국에서

신외주방적공장을 비롯한 200여개 단위에 나가 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대성도서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이곳 출판물보급소 락원분책방 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시 락원의 8명 평원들속에 들어가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보여 주는 도서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이 장군님의 믿음에 심장깊이 간직하고 있는 선군혁명정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로 결심하였다.

#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 중국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가 9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재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연구자가족들 그리고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 해외동포 대표단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단국장이 맞이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 활발

평안북도 출판물관리국에서

신외주방적공장을 비롯한 200여개 단위에 나가 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대성도서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이곳 출판물보급소 락원분책방 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시 락원의 8명 평원들속에 들어가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보여 주는 도서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이 장군님의 믿음에 심장깊이 간직하고 있는 선군혁명정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로 결심하였다.

#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 중국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가 9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재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연구자가족들 그리고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 해외동포 대표단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단국장이 맞이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 활발

평안북도 출판물관리국에서

신외주방적공장을 비롯한 200여개 단위에 나가 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대성도서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이곳 출판물보급소 락원분책방 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시 락원의 8명 평원들속에 들어가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보여 주는 도서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이 장군님의 믿음에 심장깊이 간직하고 있는 선군혁명정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로 결심하였다.

#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 중국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가 9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재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연구자가족들 그리고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 해외동포 대표단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단국장이 맞이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도서의 통한 위대성선전 활발

평안북도 출판물관리국에서

신외주방적공장을 비롯한 200여개 단위에 나가 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대성도서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이곳 출판물보급소 락원분책방 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시 락원의 8명 평원들속에 들어가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보여 주는 도서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이 장군님의 믿음에 심장깊이 간직하고 있는 선군혁명정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로 결심하였다.

#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 중국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가 9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재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연구자가족들 그리고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 해외동포 대표단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단국장이 맞이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도서의 통한 위대성선전 활발

평안북도 출판물관리국에서

신외주방적공장을 비롯한 200여개 단위에 나가 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대성도서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이곳 출판물보급소 락원분책방 출판물보급원들이 뜨겁게 애정을 쏟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시 락원의 8명 평원들속에 들어가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보여 주는 도서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이 장군님의 믿음에 심장깊이 간직하고 있는 선군혁명정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로 결심하였다.

#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 중국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구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가 9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재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연구자가족들 그리고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 해외동포 대표단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단국장이 맞이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는 동경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캐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조봉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일본을 군국화으로 떠민 미국의 죄행과 그 위험성

지난 3월 대만의 한 싸이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쿠바미싸일위기와 같은 시기를 맞을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글에서는 일본의 우주기술개발로 쿠바미싸일위기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성숙되어가고있다는 대만군사전문가의 말을 실었다.

전문가는 일본정부가 올해초에 승인한 10개년우주정책기본계획이 매우 위험적인것으로서 일본이 저들의 우주정책을 《북조선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지만 10개년우주정책기본계획에 다음세대 고체연료로켓의 개발이 들어간것은 대륙간탄도미싸일계획에 따른것이라고 까뻐했다.

일본이 대륙간탄도미싸일무력을 창설하려 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그것은 1962년의 쿠바미싸일위기와 마찬가지로 쉽게 해소되는 것은 않을것이라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견해는 결코 그릇된것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가 실지로 그렇게 되어가고있다.

지난해 여러 나라 고위급인물들이 동북아시아지역정세가 제1차 세계대전전야의 정세와 유사하다는 논거를 펼쳤다. 그에 이어 이번 대만의 군사전문가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가 쿠바미싸일위기와 조종되었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이 지역에서 그만큼 다치면 타질듯 한 정세가 팽배하고 돌아오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20세기력사에서 가장 침예한 상황으로 정세가 치달았던 1910년대의 제1차 세계대전전야와 1960년대에 있었던 쿠바미싸일위기와 같은 사태가 2010년대에 와서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조성되고있는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일것이다.

일본의 대륙간탄도미싸일무력확장이 가지는 위협성과 범죄성은 침예한 군비경쟁과 대립, 마찰이 극도에 이르렀다가 종말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사변을 가져온 당시의 정세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몇 강대국사이의 무력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하였다. 강철바퀴들이 서로 부딪치며 침예한 대결전을 벌이던 그때에 어느 나라도 하늘끝을 모르고 치달아오르는 무력경쟁의 그라프를 묵선으로 펼칠수 없었다.

현시국 동북아시아지역정세는 어떠한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과 같이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다는 주장들이 튀어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 지역은 지금 세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하는 모든 핵무력과 첨단무기를, 군사장비들의 행진, 그 활용시설장,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로 박장으로 되고있다. 이 모든 행위의 뒤에는 미국이 서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과 미국의 군사비지출은 전세계의 60%에이상을 육박하며 그중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지역이 새 세계대전발발의 열풍속에 들어가고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이 지역에서 일단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이전과는 대비할수 없는 전인류적적멸의 파멸적결과를 몰아오는 핵전쟁으로 되게 된다.

이 모든 사태는 미국이 몰아왔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를 쏟아부었고 패권적인 일본을 재생태무장시켜 오늘에 와서는 일본반동들이 어떤 이 기회에 쿠미대륙간탄도미싸일무력을 창설하는데까지 나가도록 조장시켜왔다.

교전전과 참전전을 상실한 일본이 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에 과거청산에 대한 국가적조치는 취하지 않고 무력증강에 더욱더 광분하고있는것은 비정상적이며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과거에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를 통가하는 죄악을 저지르기 위한 토대를 닦으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다.

일본을 군국화으로 떠민 역사적죄초는 미국이 조성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을 강제한 미국의 대일정책의 기본은 어제날의 죄책을 무장해제하고 다시는 미국에 도전할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속국으로 만드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일본은 비무장화와 경제의 비군사화, 일본사회의 《민주화》라는 《정책》을 실시하여 《연약한 일본》, 《미국을 다시 위협할수 없는 일본》으로 만들어 미국의 철저한 예속하에 돌로써 저들의 세계전략수행에 유리하게 리용하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대일정책은 중국에서의 정세변화와 함께 전환되게 되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당시 장개싱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허울에 불과하고 중요하게 판단된다.

대전전후에 중국의 형편을 보고은 미국의 한 판라는 장개싱의 생존가치가 거의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경마에서》 잘 말에 운명을 걸고있는것이 아닐까?》 라는 문장을 지어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한 맥카더의 대답은 미국의 역사까지 맥카더사령부의 이전 파장이었던 데이비드 콘래는 《미국에 다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어제까지 아시아의 전지역을 미제련된 세나운 말 속 일뿐》이며 그러한 말은 반드시 《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형성적으로 묘사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장개싱을 대신할 중요한 반공기구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로키우기 위한 전략계획은 《트루먼주의》 선포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갔다. 말하자면 일본경제의 군사화를 추진시키는것이였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에 재생산조건을 마련하여줌으로써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배편략의 틀안에 종속시키고 동북아시아의 병기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대일정책에 따라 《제2차》라는 구실밑에 일본의 전쟁배상문제와 재벌해체문제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국의 목적은 일본경제를 비군사화할데 대한 로즈프린턴의 리행을 모두 해방하자는것이였다.

일본을 비군사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배상문제는 유당련합국들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였다. 그런데 미제는 일본의 배상문제를 련합국들의 동의와 협의없이 처리하였다. 미제는 일본의 전쟁배상금액을 계산적으로 줄였다. 또 배상에 충당하기로 되었던 전체군수공업과 비행기제작 및 기타 군사설비를 가진 공장들의 반출을 금지하였다. 결국 1940년대말에 이르러 일본경제의 비군사화는 최종적으로 정지되고 해체되고 되었던 독점제 325개 회사들 가운데서 19개 회사만이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미피, 미피비시, 스키포도, 야스타의 4대제벌은 분사주원을 분산시키는 데 그쳤다. 이렇게 되어 일본에서의 재벌해체는 중단되고 일본독점자본에 대한 형식적인 제한조치만 현안이 취소되었다. 일본을 비군사화하던 형식적인 구호마저 집어던진 미제의 이 병기장정책은 일본독점제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활개를 치면서 경제를 군사화할수 있게 하였다.

미제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전제국 일본이 전후 혼란된 경제정국을 극복하고 점차 군사대국으로 질주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었다.

미제의 조선전쟁도발은 일본경제를 《고도성장》으로 떠미는데서 결정적 작용을 하였다.

당시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조선전쟁시기의 호성기를 《가미기제》경이라고 환상을 울리면서 막대한 리윤을 끊

어도았다.

일본의 대독점자본가들은 조선전쟁이 일본독점자본의 재생에 준 커다란 영향에 대하여 《조선전쟁은 일본경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귀신의 바람(가미기제)이었다.》, 《조선전쟁은...가물에 내리는 지혜로운 비와 같았다.》라고 실토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이 오늘 군국화으로 질주할수 있게 된것은 바로 미국이 력사적으로 그 기초를 닦아준데 있다.

전제국이 아니라 제정의 길에 뛰어든 련한 군국화된 일본, 바로 이것이 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패전후 다시는 일본이 군국화되지 못하도록 할데 대한 국제적요구를 무시하고 저들의 지배전략을 위해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군국화를 조장시켜온 미국에 있다.

오늘날에 와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심전략에 의해 걸머지 되는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일본에 떠넘기며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을 군국화의 길로 더욱 떠미는 위험한 범죄적망동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발악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다.

과거청산이 없는 일본의 앞날은 없고 재정의 길에 뛰어들려고 하다가는 지난 시기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대는 변하고 력사는 멀리 전진하고 있다. 지난날 옛 제국시대의 꿈은 피살되고넘어 갔다. 날뻐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어리석은 야망을 버리고 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에 죄 많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대응단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의 앞날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군국화 제2의 패망을 불러오는 길이다.

채 일 출

# 수리아신분글개재

수리아신문 《알 바사》 3월 29일부가 《천만부당한 대조선(인권)공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금 《인권》을 구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히스페리적인 공세를 벌리고있다. 하다면 조선의 인권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조선은 학교갈 나이에 이른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심심살판이든 외진 섬이든 학교를 세워 배움의 글소리가 그 어디에서나 울리게 하고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기12년제의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는 나라이다.

사람들은 리타비없이 건강을 담보받고있으며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들이 정연하게 전개되고 의사당담담구역제가 실시되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치료해주는 가장 우월한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조선은 그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국가가 지어준 집을 배정받아 생활하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 실업자가 없는 나라,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있으며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있는 나라이다.

조선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비로 미국과 목살한다. 세계의 망심은 천만부당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공세를 단호히 배격규탄한다.

【조선중앙통신】

# 천만부당한 대조선 《인권》공세

조선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비로 미국과 목살한다. 세계의 망심은 천만부당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공세를 단호히 배격규탄한다.

【조선중앙통신】

# 대조선 《인권》공세

조선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비로 미국과 목살한다. 세계의 망심은 천만부당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공세를 단호히 배격규탄한다.

【조선중앙통신】

# 대조선 《인권》공세

조선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비로 미국과 목살한다. 세계의 망심은 천만부당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공세를 단호히 배격규탄한다.

【조선중앙통신】

# 대조선 《인권》공세

조선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비로 미국과 목살한다. 세계의 망심은 천만부당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공세를 단호히 배격규탄한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의 사회주의는 더욱 굳건해질것이다

태양철에 즈음하여 배루신문 《약속은 나제오날리다》 3월 30일부 기사를 보면 조선의 태양상을 모시고 신문사 사장 우안 에스베노사 갈라가 쓴 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나라 조선》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필자의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주를 밝히는 태양과도 같은 세계평화의 등대이다. 그것은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은 자주민주주의 정신이 강한 불패의 군대, 영웅적인 인민이다. 그들은 자제의 힘으로 혁명적력을 갖추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자주권을 결렬히 수호할 의지에 넘쳐있다. 하여 조선의 사회주의는 오직

# 조선의 사회주의는 더욱 굳건해질것이다

태양철에 즈음하여 배루신문 《약속은 나제오날리다》 3월 30일부 기사를 보면 조선의 태양상을 모시고 신문사 사장 우안 에스베노사 갈라가 쓴 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나라 조선》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필자의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주를 밝히는 태양과도 같은 세계평화의 등대이다. 그것은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은 자주민주주의 정신이 강한 불패의 군대, 영웅적인 인민이다. 그들은 자제의 힘으로 혁명적력을 갖추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자주권을 결렬히 수호할 의지에 넘쳐있다. 하여 조선의 사회주의는 오직

# 인권의 동로대에서 또다시 행위, 폭발위기에 직면한

세월회학의 인권범죄, 인권유린국인 미국에서 극도의 인종차별, 인종중요사상이 사회전반을 지배하고있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공인된 사실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에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끊이지 않고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4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노스찰스턴시에서 백인경찰이 50대의 흑인주민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귀족같은 만행을 또 감행하였다.

이날 백인경찰은 교통단속과정에 월리드 스키프라고 하는 무방비상태의 흑인주민을 짐승사냥하듯 무참히 살해하였다.

대우기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낸것은 살인을 감행한 백인경찰의 뱀눈처럼도 날강도적인 허위진술이었다.

그는 진술과정에서 흑인주민이 자기에게서 전기충격무기를 빼앗으려 하였기때문에 사격하였다고 자기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였다.

흑백을 전도하는 그의 진술은 사건현장에서 한

# 인권의 동로대에서 또다시 행위, 폭발위기에 직면한

세월회학의 인권범죄, 인권유린국인 미국에서 극도의 인종차별, 인종중요사상이 사회전반을 지배하고있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공인된 사실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에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끊이지 않고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4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노스찰스턴시에서 백인경찰이 50대의 흑인주민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귀족같은 만행을 또 감행하였다.

이날 백인경찰은 교통단속과정에 월리드 스키프라고 하는 무방비상태의 흑인주민을 짐승사냥하듯 무참히 살해하였다.

대우기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낸것은 살인을 감행한 백인경찰의 뱀눈처럼도 날강도적인 허위진술이었다.

그는 진술과정에서 흑인주민이 자기에게서 전기충격무기를 빼앗으려 하였기때문에 사격하였다고 자기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였다.

흑백을 전도하는 그의 진술은 사건현장에서 한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세해지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통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부정부패 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날